

구분	강북영광교회 주일강단
날짜	2025년 1월 5일
제목	청지기의 새로운 시작 (여호수아처럼)
본문	여호수아 1:1-9

녹취

• 서론

2025년도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계속 가는 가운데 1월 첫째 주에 사실상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해가 될 것이 틀림없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참된 힘 보좌의 능력 무엇인가? 이 힘이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과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보좌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다. 그래야만 237 5천 종족, 프랑스와 유럽과 우리 지역 현장과 많은 죽어가는 여혼들, 우리 후대 램넌트를 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데 이 비밀 누리는 기도를 해야겠다. 777 망대, 여정, 이정표 24로 정말 누려서 나의 영적 플랫폼, 기도의 플랫폼, 기도 망대를 반드시 갖추고 24시로 누리면서 인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는 사실 한 개가 있는데 우리를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최고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며 청지기로 즉 전도자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과 가정가문과 우리의 산업과 선교하는 프랑스와 유럽과 237 5천 종족 그리고 정말 혼돈한 재앙, 저주 속에 있는 이 시대를 치

유하고 살리고자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주께서 원하시는 자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이 시대 부르셨다는 사실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 본론

1. 언약과 믿음으로 준비된 청지기 (100% 준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가나안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 가나안 입국하는 새로운 시간표에 여호수아도 있고 모든 광야에서 난 신세대 램넌트들이 이 시간표에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에 섰다. 우리 교회도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로써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언약과 믿음으로 준비된 청지기가 되어야겠다.

1)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또 갈렙을 혹은 가나안 들어가는 램넌트 모든 램넌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새로운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또 믿음도 준비하게 하셨다 준비된 청지기다. 100% 준비했다. 우리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올해 제2의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모든 면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이제 시대가 바뀐 것이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눈

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이다. 새로운 시작의 말씀이다. 우리 교회는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정말 믿고 기도해야겠다.

2) 이미 100%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

이때 하나님께서 100%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새로운 시간표에 새로운 시작 하도록 준비하신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셨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100% 준비하신 준비된 제자다. 첫 번째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다. 이 말은 지도자 모세 밑에서 완전 훈련받았다. 무슨 훈련을 받았는가?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 하는 모든 과정과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든 것에 모세의 시종으로 그 수종자로 그 밑에서 완전 훈련을 받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훈련받으면서 제일 첫 번째 언약을 붙들었다. 언약이 체험되었다. 복음의 언약이 체험되었다. 이게 무엇인지 알고 훈련받았다. 출애굽 할 때 유월절 절기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라. 출 3:18 피 언약, 피 제사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준비하고 훈련받았다. 그리고 체험했다. 양의 피 실제 체험했다. 양의 피 바른 날 그 강한 바로왕의 손에서 해방되지 못한 애굽의 노예 된 종살이 가운데서 해방, 구원받은 것을 체험했다. 복음과 구원을 체험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양의 피 주인공 그리스도, 즉 우리는 복음을 체험하고 완전 각인, 뿌리, 체질 그뿐만 아니라 결론, 답 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을 체험했다. 그리고 각인되었다.

모세의 시종으로 훈련받았다. 마치 열두 사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받은 것처럼 그랬다. 여호수아 전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니까 부름 받은 지도자 제2의 시작하는 그 시간표도 물론이고 모든 과정에 마지막 끝까지 24 할 언약을 24 하는 지속하는 정말 절대 제자로 준비되었다. 오늘 우리 직분자로 임명받은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부터 당회원들 모두 직분이다. 안수집사, 권사님들 중직자라고 한다. 모든 직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첫 째, 여호수아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훈련하게 하시고 진짜 결론, 답, 완전 준비된 제자로 하듯이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에게 청지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먼저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다. 모세의 시종 이 말 중 한 말이 있다. 그 뜻이 무엇인가? 모세 밑에 완전 제자로 훈련받았다.

올해는 복음과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인도받는 모든 훈련에 본부 훈련에 사명자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훈련에 이제 정말 하나하나씩 인도받고 훈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 안 된 제자라면 말로는 나 제자, 잘해하지만 사건, 문제, 어려움, 혼란 오면 다 넘어진다. 포기한다. 돌아선다. 무리들 가운데 함께 가버린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다. 자그마치 훈련받은 게 몇 년인가? 출애굽 때부터 그전에 애굽에 벌써 훈련받았으니 거기서도 오래 있었고 광야 40년 동안, 40년 변하지 않고 일심, 전심, 지속 오직 모세 시종으로서 모세밑에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광야의 모든 훈련을 다 받았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다. 그다음 광야 40년간 훈련받았는데 중요한 훈련을 또 받았다. 세 절기가 뭐다, 언약계가 뭐다 훈련받았다. 성막 중심의 예배 승리하는 게 뭐다, 예배가 뭐다 여호수아는 진짜 훈련받았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체험했다. 그러면서 진짜 준비된 제자요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로 그것도 지속할 수 있는 24 할 시스템의 제자로 훈련받았다.

그리고 중요한 특별 훈련 또 받았다. 광야생활 접어들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했다 열두 지파 대표 지도자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했다. 40일 정탐했는데 그 열두 정탐꾼 중 여호수아가 특별 전도캐뉼프 훈련받으면서 현장이 무엇인지 또 봤다. 가나안 들어간다는 말은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복음화하는 전도, 선교하는 현장이다. 그 훈련을 특별히 받았다. 40일간 정탐했다. 이때 벌써 언약과 믿음이 확실했다. 영안이 활짝 열려있다. 열두 명이 갔는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열 명이 가보고도 믿지 않았다. 언약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언약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언약,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 봤는데도 믿지 않는다. 불신앙의 보고를 한다.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며 장사들이고 그들의 성읍은 거대하고 견고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질 수밖에 없는 메뚜기다. 그러면서 보고를 했는데 불신앙 보고가 되었다. 그 보고 열 명이 하나까 그날 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불신앙 포럼이 전체 집회가 되었다. 당장 하나님 원망, 모세 지도자 원망,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는가?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홍해를 건너다가 죽어버리면 더 나았을 것을, 오만 불신앙을 다 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보고도 악평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위기를 맞았다. 모세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하고 드디어 하나님 원망 지나서 모세 지도자 원망, 이제부터라도 모세 지도자 저놈 죽이든지 폐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그때 나타나셨는데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하나님의 기적, 인도하심, 역사를 열 번 이상 봤지 않는가? 언제 봤죠? 출애굽 할 때 벌써 봤죠. 이렇게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때 위기 때 다 불신앙 보고 할 때 믿음을 선택하며 여론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보고를 하며 본 사실 그대로 말한 정도가 아니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했다. 이게 누구인가? 여호수아다. 여호수아 이때 특별 전도캠프 훈련받았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주실 것이다. 가보니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열명과 정 반대의 보고를 했다. 또 말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들의 지도자는 이미 다 떠나갔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이것만 보면 믿음 100% 준비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지도자다. 저와 여러분, 올해도 어려움과 사건, 문제 올해도 작년처럼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 가정에도 좋고 나쁜 일 있겠죠. 연연하면 안 된다. 오직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가나안 언약을 여호수아는 믿었다. 진짜 믿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기뻐하는 종이 있다. 그게 다윗인데 다윗의 중심을 보니 너무 심히 기쁘지라 하셨다. 믿음 충만이죠.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이 정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사실 끝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 중직자들, 램넌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갈렙 - 또 한 명의 진짜 제자

여호수아는 믿음 100% 준비되었다. 지도자 감에 하나님 지도자로 쓰실 제자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

이 또 있다. 또 한 사람 제자가 준비되었는데 갈렙이란 제자다. 유다 지파의 정탐꾼이다. 그리스도 오시는 그리스도 지파의 일꾼이다. 갈렙 여호수아와 동기생이다. 나이가 같은지는 모르는데 동기생이다. 모세 밑에 똑같이 훈련받았다. 믿음 충만하고 믿음 좋은 것 당연하고 전도 훈련, 모든 언약의 여정 훈련 다 같이 받았다. 오직 언약이었다. 오직 복음이었다. 피 언약, 유월절 어린양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 벌써 답 났다. 오직 복음이었다.

이 역시 갈렙도 믿음의 보고를 하고 믿음으로 했다. 이때 똑같이 정탐하고 나서 다녀와서 여호수아와 똑같이 믿음의 보고를 한다. 민수기 13-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똑같이 믿음의 보고를 한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은 무슨 말에서 나온 것인가? 열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 포럼 해서 난리 났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여호수아 갈렙 옷을 찢고 갈렙도 너무나도 불신앙 안타까워서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보고를 고백을 한다.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 함께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자고 했다. 이 믿음의 보고 믿음의 고백을 똑같이 했다. 하나님 인정했다. 여호수아도 그렇지만 갈렙도 하나님 인정하셨다. 무엇을 인정하셨는가? 갈렙의 믿음과 언약과 모든 중심, 삶을 인정. 진짜 제자다. 불신앙 하는 열 명 정탐꾼과 달리 민 14:24 내 종 갈렙은, 일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갈렙도 내가 특별히 진짜 인정하는 중이다. 즉 제자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 믿고 믿음대로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온전히,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하나님 말씀, 언약, 하나님 향하는 믿음 온전히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을 내가 그 땅

으로 인도하여 그를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과론적인데 애굽에서 난 모든 세대 단 두 명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애굽에서 난 출애굽 1 세대 광야에서 난 자 말고 신세대 렘넌트 말고 다 죽었다. 치유함 받는다고 40년 뱅뱅 돌고 불신앙 치유하느라 다 죽었다. 그런데 두 명은 살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가나안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며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았다.

그래서 먼저 우리도 2025년 작년에 우리가 다락방 전체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도 가장 위기를 겪어보고 사건, 문제, 어려움 속에 별의별 거를 다 보게 되었다. 우리는 힘이 떨어지고 언약하고 속에 화도 나고 우리조차 혼란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베푸시고 치유하시며 그보다 더 중요한 진짜 확실한 강한 언약의 믿음 우리 모두에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준비되었다는 말은 믿음이 확실했다.

2. 새로운 시작 - 오직 믿음으로 시작 (대구 칠곡 프랑스 유럽 237 5,000종족 세계복음화)

두 번째다.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올해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가자. 대구, 칠곡 복음화, 프랑스 복음화, 유럽 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렘넌트 사역, 세 가지 틀, 금토일 시대 이 모든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받는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1) 가나안 땅 - 약속의 땅은 이미 주신 언약. 그러니 믿

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약속한 가나안 땅 이미 주신 언약이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하면 이미 받은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안 믿었다. 이 응답 못 받았다.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이미 주신 언약이다 언제인가?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약속 벌써 하셨다. 세계복음화 할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실 언약의 땅 벌써 약속되어 있다. 그다음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배 승리하는 가운데 귀중한 언약을 주시고자 예배 가운데 임하셨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고 한 사건 중에 있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다. 물론 새는 쪼개지 않아서 양도 소도 다 쪼갠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 조그마한 부분에 그리스도 피 언약 희미하게 놓친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다. 너는 평안히 언약의 여정 가고 하나님 축복받다가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네 자손, 후대들은 렘넌트 세대들은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되고 그다음에 400년 지난 다음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 벌써 말씀하셨다. 그게 가나안 땅이다.

그다음에 출 2:23-25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이방의 객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애굽에 노예 된 것이다. 430년 즈음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부르짖으며 고통가운데 기도한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셔서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고통의 기도를 들으셨다. 들으시고는 말씀하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내가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겠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다. 가나안 땅 언약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언약의 여정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 약속한, 이미 약속하신 언약이고 약속된 땅이다. 믿음으로

로 믿기만 하면 응답받는 것이다. 안 믿어서 문제지. 올해 이 한 해는 오직 하나님 말씀,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무조건 말씀 중심의 오직 말씀 24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수1:3) -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또 모세 지도자를 처음 부르셔서 출 3:18 피 언약을 약속하시고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어린양 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다. 이 모든 과정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의 시종으로 또 모세 밑에 훈련을 받았다.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 말씀했다. 3절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미 정복된 가나안 현장이다. 믿기만 하면 이미 정복되고 응답받은 것이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탐꾼 갔다가 보고한 그때에 벌써 믿음으로 밟은 땅이었다. 이미 응답받은 것이다. 이 응답은 진짜 누가 받았는가? 불신앙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언약과 약속을 믿고 믿음의 보고한 여호수아, 갈렙은 이 응답을 받았다. 이미 받은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올해 송구영신 메시지, 본부 원단 메시지, 또 매 주일마다 강단을 통하여 말씀받을 텐데 말씀 24,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잡고 믿고 오직 말씀 따라 인도받는 모든 주의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약속하셨다. 믿음으로 인도받을 때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5절에 말씀하셨다. 당할 자 없겠다.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 여호수아는 이 약속

의 말씀을 받았다.

3) 오직 말씀을(언약을 잡고) 따라가라 -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수 1:7)

그다음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하신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평생에도 그랬지만 지도자로 제2의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인도받았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인도받았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오직 말씀을, 오직 언약을 잡고 따라가라. 우리는 세 산지 정복, 우리 교회 요약하자면 세 산지 정복인데 세계복음화 언약 올해 2025년도 언약의 여정 어떻게 가는가? 오직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언약 24다.

그리고 플러스, 이 언약 잡고 한 개만 하면 된다. 불신앙 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 24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다. 그렇게 따라가라고 했다. 7-8절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대 전제가 무엇인가?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하는 것,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오직 언약을 따라 인도받는 것. 그 말씀을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가?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 위기, 압박 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을 24 하는 것이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24, 하나님 말씀, 율법을 즉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24 한다는 말이다.

사건, 문제, 어려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안 온다는 보장 있는가? 지금 교회 난리다. 한국 교회 위기, 문제 벌써 왔다. 지금 국가 위기까지 왔다. 아주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가? 후대들 어떻게 되는가? 이때에 하나님 말씀, 언약 24, 말씀 24, 언약 24 이 말씀을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24 하는 것이다.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 24 하라는 것이다. 오직 말씀, 3집 중 하라. 묵상 24. 네피림 3 단체 서밋들이 명상 24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끌고 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언약, 하나님 자체를, 성삼위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시대를 열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묵상 24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또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4) 강하고 담대하라 (수1:6-7, 9)

이 말씀하신 다음에 진짜 믿음으로 행하라, 하나님 단어는 다른 데 단어가 반복되는데 보면 아홉 번 강조하시는 강조의 의미가 있다. 여호수아야, 너는 오직 강하라. 담대하라. 또 말씀하신다.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이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언약으로 붙잡고 24 하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라. 내가 네게 명령했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언약의 여정을 올해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이제 시작하는 첫 주인데 말씀을 따라 언약을 굳게 붙들고 말씀 24, 오직 믿음 24 하여 언약의 여정을 가는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 말씀 따라, 언약에 따라,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림

여호수아 그다음에 인도받는다. 모든 것 말씀 붙잡고 기도 24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으며 인도받는다. 언약궤를 따라간다. 요단을 건너는 체험과 함께 흥해 갈라져 건너듯이 요단을 체험한다. 요단을 건넌다. 강한 여리고성 하나님 말씀 싸우지 않고 말씀 붙잡고 그대로 인도받았더니 강한 여리고성, 우상의 성, 사탄의 성 무너뜨린다. 그다음에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역사 일어나며 열두 지파 전부 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들 다 차지하고 응답받는다. 그리고 거대한 아낙산지 마지막 남았는데 믿음의 보고와 믿음의 언약의 여정을 45년간 지속한 갈렙이 그 응답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 올 이 한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간표로 정말 확신하고 새롭게 시작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그 믿음 어떻게 하는가? 말씀 24로, 기도 24로 오직으로 인도받는 전도 제자되어 인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 결론

여호수아의 특징 무엇인가? 갈렙의 특징도 마찬가지다. 일심, 전심, 지속이다. 진정한 제자다. 바울도 그랬다. 브리스가 부부도 그랬죠. 바울을 만난 이후에 브리스가 부부 일심, 전심, 지속. 고린도에서부터 온 아시아, 그리고 온 유럽, 마지막에 로마까지 바울도 순교했다. 브리스가 부부도 순교자의 기록에 보면 외국에 가서 해외 가서 선교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로 가서 순교했다고 나와있다. 일심, 전심, 지속 이게 여호수아의 특징이다. 언약의 여정 시작도 언약과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 24로 모든 과정에도 일심, 전심, 지속. 마지막까지 지속했다.

수 24:14부터 증거가 나와있다. 이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 죽기 전에 여호수아도 승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승리, 응답받았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영안이 열린 자다. 혹 내가 죽은 뒤에 우리 후대들 그다음 후대들이 복음과 언약,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전도, 선교 놓치고 그러할 일이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되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았다. 그리고 말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말씀, 언약, 복음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언약 붙들고 섬기면서 나아가겠다는 말이다. 지금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게 있는데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언약을 여정,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방 신상, 우상 섬기고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미션 놓치고 재앙, 저주의 길로 가겠는가?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언약의 여정을 잡고 마지막까지 일심, 전심, 지속하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았다. 이때 이스라엘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신세대 램넛들이 당신의 말대로 지도자 여호와 하나님의 종 당신의 말대로 우리도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부름 받고 죽었다.

2025년 청지기로 부름 받은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인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직 언약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24로 잡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 24 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한해가 되시며 승리하는 모든 청지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특히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보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역사 우리에게 부으셔서 틀림없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는 모든 언약의 하나님 사람이요,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청지기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또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또 갈렙처럼 오직 언약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24로 말씀 24, 기도 24로 2025 새로운 시작하게 하시며 언약의 여정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올해도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짜 제일 중요한 전도제자로 올해도 인도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성도들 언약의 여정 위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Heavenly Power, Thronely Power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